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찬송가 68장)

1.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엮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2.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재시여 큰 풍량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3.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재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찬송가 384장)

1.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하리라
2.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아멘



설 명절 예배순서

예배로 부름	마태복음 5:13~16/ 인도자 이 시간 설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찬송가 68장)/ 다함께
기도	말은이(또는 가족이 한 사람씩 짧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봉독	이사야 43:1, 21/ 말은이 1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 21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	너는 내 것이라/ 말은이
합심기도	가정의 기도 제목/ 다함께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찬송가 384장)/ 다함께
마침기도	인도자
평화와 축복의 인사	다함께(새해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설교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삶과 죽음으로부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고민하며 질문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압축하면, 근본적인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마도 이 질문은, 종교가 다르거나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수없이 던진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찾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선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심을 촉구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선포된 말씀을 귀로만 들을 뿐 마음을 굳게 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상과 함께 그들의 삶, 그들의 나라는 전부 무너집니다.

이렇게 절망과 두려움, 막막함과 실망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출현을 예고하시고 성취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불리는 ‘내밀한 이름’입니다. 그러시며, 사랑하시는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의 창조주이며,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를 구속(어려움에서 건지심)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 존재와 정체성은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며,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 제일 마지막에 흠으로 지어져, 때가 되면 흠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 아니며, 삶의 이유와 목적 없이 흘러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궁극적 가치로 삼고 성숙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령한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빚으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큰 바위 얼굴’(나다니엘 호손, 1850)이라는 단편소설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을 두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결국,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부자도/ 장군도/ 정치가도 아닌,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진리를 추구하고 마음과 삶이 일치되게 살아가는 주인공에게서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며 삶이 해처럼 빛 날 것입니다. 설 명절,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